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3년 7월 14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건축과	담당자	• 광고물팀장 서미순 ☎440-4766 • 담당자 장인희 ☎440-4773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조례 위반 현수막 일제 정비 ... 연수구서는 모두 사라져
 - 일제 정리 이틀 만에 정당 현수막 포함 총 92개 철거 -
 - 다른 군·구에서도 다음 주부터 다수 민원 발생지역부터 정비 예정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현수막 일제 정비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연수구 관내 모든 조례 위배 현수막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월 8일 시는 정당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는 개수도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제한하고, ▲혐오와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해 시행했다. 이후 지난 11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2일부터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조례에 따른 현수막 정비를 강력히 이행해야 한다면 결의문을 채택했고, 연수구에서 가장 먼저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

연수구에서는 첫날인 12일, 17여 명이 참여해 47개소에서 조례 위배

현수막 84건을 철거했다. 첫날 강제 정비 중에는 정당의 자진 정비(33건)도 이뤄졌다. 둘째 날인 13일,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추가 순찰을 실시해 8개소에서 8건을 철거해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조례 위반 현수막을 모두 정비했다. 양일간 정비한 현수막은 55개소 총 92개다.

연수구는 정비를 완료한 이후 새로 설치된 조례 위반 현수막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순찰해 정비할 계획이다. 또 현재까지는 현수막 정비로 인한 고소나 고발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시는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조례에 따라 강력히 이행할 것을 결의했고, 이번 주는 장마 기간 중이라 현수막 정비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음 주부터 정비 계획을 세워 철거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조례 위반 현수막 일제 정비로 많은 시민들과 여론의 격려를 받았다”며 “시민의 안전과 깨끗한 현수막 청정 도시를 위해 군수·구청장들과 함께 나갈 것이며 정당들의 양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